

The top half of the cover features a dark blue background. In the center is a glowing globe showing the Americas. To the left of the globe is a stylized, curved banner with the 'JRI' logo in white. Several translucent, rectangular panels are arranged around the globe,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dernity.

2nd Week, August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2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중산간 구역, 기초자치단체, 활성화, 노선, 수립
경제·관광	관광객, 청년, 금고, 외국인, 소상공인
지역·사회	폭염, 업체, 병원, 예방, 차량

※ 분석 기간 : 8월 5일~8월 9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중산간 구역	- 중산간 2구역 개발 제한 논의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활성화	-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 제주 원스톱 기업지원협의체 출범
	노선	- 버스 노선 개편 및 조정
	수립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관광객	-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청년	-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금고	- 제주자치도 금고 운영 경쟁
	외국인	-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강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폭염	- 폭염으로 인한 농업 및 건강 피해
	업체	-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적발
	병원	- 병원 응급 환자 이송
	예방	-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
	차량	- 차량 사고 및 교통 안전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 중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4-2025년 행동 계획을 발표, 표준과 측정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관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탄소 배출 계산 및 평가 표준 구축 예정
- ✓ 중국은 2024-2027년 동안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 중국 광해그룹(广合集团)이 중국 최초로 핵전력 산업 관광 예약 시스템을 개시하여, 9개 핵전력 기지 방문 예약 가능
- ✓ 선전(深圳)은 세계 최초로 지능형 저고도 비행 통합 시스템(SILAS)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1,000개 이상의 저고도 착륙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고도 비행 및 관련 산업 발전 촉진 예정
- ✓ 광둥(广东) 링난통(岭南通)과 싱가포르 이통(EZ-Link)은 중국 330개 도시와 싱가포르에서 사용 가능한 새로운 국경 간 교통카드를 2024년 말 출시할 예정임. 이 카드로 대중교통과 쇼핑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
- ✓ 산둥성은 2025년까지 300개의 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성하고, 2035년까지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우호적 공간 조성, 건강 지원, 고령자 서비스 등 6대 우호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의 생활 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
- ✓ 산둥성은 문화관광 시장을 활성화하고, 연간 관광객 9억 명 유치와 관광 수입 1조 위안 돌파를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축제, 미식 홍보, 시골 관광 등 12가지 주요 조치를 추진할 예정

○ 일본

- ✓ 도쿄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체 프레온의 누출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프레온 기기의 도입을

촉진하고, 기기 사용 및 폐기 시 누출 방지 대책 강화

- ✓ 고치현 나카토사초는 민간 기업 '나카토사 LIFE'와 협력해 빈집 활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이주 희망자 수용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시코쿠 지역에서 처음 이루어진 시도
- ✓ 이치카와시는 2025년에 케이요 가스와 함께 전력 회사를 설립해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생성된 전기를 공공시설에 공급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추진할 예정
- ✓ 쿠라마모토 제작소는 13억 엔을 투자해 이와테현에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 생산 라인을 설치, 2025년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얇고 구부릴 수 있어 건물 벽 등에 쉽게 설치 가능
- ✓ 삿포로시는 JR 북해도 나에보 공장 부지에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수소 제조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는 중형·소형 버스와 대형 차량, 오피스 등에 공급될 예정
- ✓ 가와사키시는 2025년부터 버스 자율주행 실증 실험을 시작하여 2027년 실용화를 목표로 함. 실험은 “레벨 2”에서 시작해 “레벨 4”까지 진행되며,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말레이시아

-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일본이 말레이시아의 초기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기대함.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상호 연결성 강화와 글로벌 이슈 대응을 추진 예정
- ✓ 말레이시아 케난가 투자은행은 2024년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이 4.3%-4.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외 리스크로 인해 수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됨. 그러나 내수와 서비스 부문 성장세가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말레이시아는 SK 넥실리스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대 동박 공장을 코타 키나발루에 설립, 2024년 완전 가동 예정이며 사바 주 GDP에 30억 링깃 기여 기대

○ 태국

- ✓ 태국 상무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및 시장 노점 등의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국가 경제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요 시장과 정부 운영 상업 시장도 포함되며, 소상공인의 저렴한 소비재 판매 지원
- ✓ 태국 대기업 차룬 포카판 그룹(CP Group)은 필리핀 농업 부문에 1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1만 헥타르 규모의 현대화 농장 개발을 포함한 주요 축산업 확대를 지원할 예정
- ✓ 태국 관광청(TAT)은 2024년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젊은 여행객과 소규모 단체관광객, 카라반 투어에 집중할 예정
- ✓ 태국은 국가 수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5,484억 바트 규모의 3개년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 댐 건설과 관개 시스템 개선 등 포함

○ 필리핀

- ✓ 필리핀 농무부는 저렴한 수입 쌀로 인한 현지 농민 보호를 위해 특별긴급 관세(SSG) 도입을 검토 중임. 관세율 조정은 향후 4개월 동안 검토 예정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는 중국 BTR 신소재그룹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가 건설한 음극재 공장을 가동하며, 연간 8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2024년에는 생산 용량을 16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2024년 8월 5일~8월 9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724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239건, 경제·관광 분야 157건, 지역·사회 분야 328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239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중산간 구역, 기초자치단체, 활성화, 노선, 수립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중산간 구역	- 중산간 2구역 개발 제한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발 300m 이상을 '중산간 2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발표함 · 중산간 1구역과 달리 2구역에서는 관광·휴양형 첨단산업 개발이 허용되어 개발 특혜 우려가 제기됨 · 도민 설명회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 중임 ·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 내 행정 전담팀(TF)을 총괄, 행정조직, 홍보, 재정, 법제, 기반구축 등 6개 분야로 재편함 · 도는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주민투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활성화	-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먹깨비' 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8월 9일부터 배달비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재개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앱 이용을 장려함 · 이와 함께 낮은 가맹점 수수료(1.5%)와 무료 광고 혜택, 지역화폐 사용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가맹점 확대를 추진 중임 · 배달의민족과 같은 민간 앱의 수수료 인상이 가맹점 확대와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제주 원스톱 기업지원협의체 출범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기업지원협의체'를 출범 · 이 협의체는 기업 정착에 필요한 입지 지원, 인허가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 협의체는 신성장 산업 유치와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노선	- 버스 노선 개편 및 조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일로 시행된 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일주일 만에 일부 노선을 조정함 · 개편된 노선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주요 민원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 운행 시간 조정과 배차 간격 조정 등이 포함됨 ·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1회 단위로 개선 사항을 반영할 예정
	수립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중산간 지역의 개발 제한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 · 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57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관광객, 청년, 금고, 외국인, 소상공인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관광객	-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 2024년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약 11.8%가 제주를 방문,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특히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의 비중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5.1%를 차지, 주요 관광객층으로 자리 잡음 · 제주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과 카페거리에서 프로모션을 진행,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청년	-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 중 ·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내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 훈련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
	금고	- 제주자치도 금고 운영 경쟁 · 제주자치도의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 지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1금고인 농협은행과 2금고인 제주은행이 다음달 말까지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경쟁하게 될 예정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폭염	- 폭염으로 인한 농업 및 건강 피해 · 제주시 구좌읍 등 동부지역의 당근 농가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아 문제를 겪고 있음 · 저수지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농민들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 피해가 확산 · 제주시와 관계 기관은 이동식 물탱크와 급수차량을 이용해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으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업체	-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적발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4곳을 적발하여 조사 중임 · 이들 업체는 정식 등록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환경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음 · 해당 업체들은 정상적인 배출시설 없이 도색 작업을 진행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단속에 적발됨
	병원	- 병원 응급 환자 이송 ·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어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하여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됨 · 또한,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호텔에서 2세 남아가 익수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현재 회복 중임
	예방	-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 ·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충전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방 장비는 부족한 상황 · 공공기관 중 전기차 화재 진화용 질식소화 덮개나 소화수조를 갖춘 곳은 전무한 실정 ·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와 법적 강제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차량	- 차량 사고 및 교통 안전 · 제주시 도남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 · 또 다른 사고로는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4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됨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탄소중립 표준 강화 추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표준과 측정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2024-2025년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은 탄소 배출 관리와 탄소 가격 정책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기관들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표준 개발 및 적용을 목표로 함 - 계획의 주요 목표는 2025년까지 기업, 프로젝트, 제품을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 계산과 평가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또한, 중요 분야의 탄소 측정 기술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의 검정 및 교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이 계획은 탄소 배출 핵심 표준 개발, 제품의 탄소 발자국 규제, 에너지 소비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16개의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음. 이를 통해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출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중국,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 가속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4-2027년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은 새로운 전력 시스템의 청정, 안전, 효율성 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마련되었음. 또한,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함 - 이 계획은 2024-2027년 동안 9개의 주요 과제를 설정하여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 과제는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전송 및 수용 능력 향상, 스마트 배전망 개발, 신형 저장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임

- 계획의 실행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과 기업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임. 또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임

※ 출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중국 첫 핵전력 산업 관광 예약 시스템 개시

- 중국 광핵그룹(中广核)은 최근 중국 최초로 핵전력 산업 관광 예약 시스템을 정식으로 개시하였음. 이 시스템을 통해 일반 시민은 중국 내 9개의 핵전력 기지를 선택하여 방문 예약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핵전력 산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함
- 중광핵(中广核)의 이 새로운 시스템은 “개인 예약”과 “단체 예약”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예약할 수 있음. 이는 핵전력 기지 관광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교육적 가치와 안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함
- 본 시스템의 출범과 함께, 중국 최초의 “핵전력 산업 관광 백서”도 발표되었음. 이 백서는 9개의 핵전력 기지 관광 경로와 주변 명소를 통합한 지도로, 방문자들에게 종합적인 관광 안내를 제공함. 이는 핵전력 산업과 지역 관광 자원의 융합을 촉진함

※ 출처: 中国新闻网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中 선전, 세계 최초의 지능형 저고도 비행 통합 시스템 발표

- 중국 선전은 세계 최초로 지능형 통합 저고도 비행 시스템(SILAS)을 발표하며, 저고도 항공 경제를 위한 고품질 인프라 구축 계획을 공개하였음. 이 시스템은 저고도 비행기를 위한 착륙 시설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2025년까지 1,000개 이상의 저고도 착륙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저고도 비행 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선전의 저고도 경제는 드론 제조, 저고도 비행, 지상 지원, 종합 서비스 등의 전체 산업 체인을 포함하며, 최근 저고도 물류와 민간 항공편의 연결이 시험 비행되었음. 이는 저고도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임
- 지능형 통합 저고도 시스템은 시설, 공중 네트워크, 항로, 서비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전의 저고도 비행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함. 이 시스템은 미래에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더 발전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 출처: 科技日报

○ 광둥과 싱가포르, 연말까지 새로운 국경 간 교통카드 출시 예정

- 광둥 링난통(岭南通) 주식회사와 싱가포르 이통(EZ-Link) 주식회사는 새로운 공동 브랜드 교통카드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카드로 중국 내 330개 이상의 도시와 싱가포르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말 출시될 예정임
- 2016년에는 세계 최초의 국경 간 교통 스마트카드인 “이통위신(一通粵新)” 카드가 출시되어, 광둥과 싱가포르 간의 대중교통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했음. 이 카드로 현재까지 8,000장 이상이 발행되었으며, 버스, 지하철, 쇼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이번에 출시될 새로운 “위신 교통 연합카드(粵新交通联名卡)”는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기존 광둥 지역에서 중국 내 330개 이상의 도시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싱가포르의 대중교통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됨. 양측은 이 카드의 사용 가치를 높이고, 관광 티켓 기능 등을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더욱 증대할 계획임

※ 출처: 中国新闻网

○ 산둥성, 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구축하기 위해 6대 우호 체계 마련

- 산둥성 민정청(民政厅)은 22개 성(省) 직속 부서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였음. 2025년까지 약 300개의 전국 시범 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2035년까지 전 지역에 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를 완전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의견은 '우호적 공간 조성, 건강 지원, 고령자 서비스,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 정보 지원'의 6대 우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고령자들의 만족도와 안전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고령자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고령자 가구에 대한 적응형 개조를 장려하고, 가난한 고령자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또한, 지역사회 건강 지원과 고령자 돌봄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여, 2025년까지 모든 지역 의료 기관이 국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예정임

※ 출처: 大众新闻客户端

○ 산둥성, 문화관광 시장 활성화 추진

- 산둥성 문화관광청은 문화관광 시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은 우수한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하반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다양한 문화축제와 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있음. 연간 국내 관광객 9억 명 유치 및 관광 수입 1조 위안 돌파를 목표로 함 - 이 계획에는 12가지 주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적 행사 개최, 관광지 및 휴양지의 시설 개선, 숙박 산업의 고품질 발전, '미식(美食) 산둥' 브랜드 강화 등이 있음. 특히, 전통 요리인 루차이(魯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요리와 미식 문화를 홍보하고, 연계된 행사를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등 포함됨 - 또한, 시골 관광과 체험형 관광을 중점으로 하여, 전통적인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교육과 연계된 학습형 관광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임. 이를 통해 산둥성의 문화관광 산업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할 예정임 ※ 출처: 齐鲁晚报
일본	○ 탈탄소화 목표 위협하는 대체 프레온 문제, 도쿄도 고심 - 도쿄도는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대체 프레온의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체 프레온은 냉매로 사용되는 에어컨과 냉장고에서 발생하며, 사용 중이나 폐기 시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지적됨 - 도쿄도는 2024년도부터 대체 프레온을 사용하지 않는 '논 프레온' 기기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기기 사용 및 폐기 시 누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기기 폐기 현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프레온의 누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 프레온의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의 누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려우며, 가장 큰 대책은 가능한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빨리 기기를 논프레온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도쿄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새로운 대책을 검토할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고치현 나카토사초, 민간 기업과 협력해 빈집 활용 추진

- 치현 나카토사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기 위해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 '나카토사 LIFE'를 “빈집 관리 활용 지원 법인”으로 지정하고, 8월 5일에 교부식을 개최하였음. 이 지정은 시코쿠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임
- 이 법인은 개정된 빈집 대책 특별 조치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정보를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얻어 빈집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나카토사 LIFE의 대표는 이주 희망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빈집을 발굴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나카토사초는 빈집 개보수 비용 보조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민간의 힘을 빌려 빈집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출처: 日本經濟新聞

○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탄소중립 추진: 이치카와시와 케이요 가스, 신회사 설립 계획

- 치바현 이치카와시는 2025년에 지역 가스 사업자인 케이요 가스와 공동으로 새로운 전력 회사를 설립하여,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생성된 전기를 시내 공공 시설에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 시도는 환경부가 모집하는 탈탄소 선행 지역에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이치카와시는 현재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전력의 지역 내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초기 공급량은 시 전체 수요의 1.4%에 불과하지만, 향후 소각 시설의 발전 능력을 1.5배로 강화하여 개인 가정에도 전기를 공급할 계획임

- 부족한 전력은 케이요 가스가 전력 시장에서 구매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가정과 사업자의 태양광 전력도 구매할 예정임. 이치카와시는 이러한 전력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곡면 태양전지 생산을 위한 13억 엔 투자: 쿠라마모토 제작소

- 쿠라마모토 제작소는 얇고 구부릴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의 생산에 착수한다고 8월 7일 발표하였음. 이 회사는 약 13억 엔을 투자하여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에 위치한 하나이즈미 공장에 유리형과 필름형 두 종류의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2025년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 이 생산 라인은 연간 약 1메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 개발 기능도 겸하고 있음. 쿠라마모토 제작소는 중국의 대량 생산업체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고, 기술자도 수용하여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는 얇고 구부릴 수 있어 건물의 벽 등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잇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총 2조 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하여,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의 실용화를 위해 최대 648억 엔을 지원할 예정임. 2030년도까지 사회적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AI로 적조(赤潮) 감지, 마이스티아와 협력

-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마이스티아(熊本県益城町)와 구마모토 고등전문학교, 구마모토 해수 양식 어업 협동조합은 양식업에 피해를 주는 적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하였음. 이들은 적조 플랑크톤의 증식을 감지하는 AI 시스템 연구 개발 및 인재 육성에 협력할 계획임
- 구마모토현에서는 올해 이미 12억 엔 규모의 적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구마모토현은 7월에 나가사키현, 가고시마현과 공동으로 적조 피해 대책에 대한 긴급 요청을 정부에 제출하였음

※ 출처: 日本経済新聞

○ 고치현, 세 번째 환경채권 발행: 10월에 50억 엔 규모

- 고치현은 10월에 환경 관련 사업에 한정된 그린본드(환경채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하였음. 이번 발행은 2023년 3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5년 만기의 50억 엔 규모로 지역 기업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될 예정임
- 이번 환경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에너지 절약 사업,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임. 이전 발행채권은 산사태 방지 시설 정비와 마키노 식물원의 시설 정비 등에 활용되었음
- 고치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일본 최고의 산림율을 활용한 탈탄소 사회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출처: 日本経済新聞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삿포로시, JR 북해도 나에보 공장에 수소 플랜트 건설 검토

- 삿포로시는 JR 북해도의 나에보 공장부지에 수소 제조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검토 중임. 2030년도의 가동을 목표로 하며, 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는 현재 건설 중인 수소 스테이션에 공급될 예정임. 이 수소는 연료 전지를 이용한 중형·소형 버스와 대형 연접 차량에 활용될 계획임
- 나에보 지역은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시 중심부에 가까워 오피스 등으로의 수소 공급에도 높은 편리성을 제공함. 수소 제조 플랜트 구축에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성하는 수전해 장치와 저장 탱크 등이 필요하며, 전력 및 송전망 확보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임
- JR 북해도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27년 이후를 전망한 사업 구상에 수소 활용을 포함시킬 계획임. 수소를 활용한 연료 전지 차량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삿포로역 앞에서 계획 중인 재개발 빌딩에 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 가와사키시, 2025년부터 버스 자율주행 실증 실험 시작

- 가와사키시와 가와사키 쓰루미 린코 버스는 2025년 1월부터 버스 자율주행 실증 실험을 시작할 계획임. 2026년도에는 특정 조건에서 모든 조작을 시스템에 맡기는 “레벨 4” 실험을 진행 하고, 2027년도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실증 실험에는 승객 정원이 15명인 작은 버스를 사용하며, 처음에는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레벨 2”로 시작함. 실험은 가와사키시 내의 게이큐 다이시바지역과 도쿄도의 게이큐 텐쿠바지역을 잇는 노선, 가와사키역과 시립 가와사키 병원을 잇는 두 가지 노선에서 진행됨. 일반 시민이 탑승할 수 있는 기간도 마련할 예정임 - 실험 중에는 주차된 차량을 추월하거나, 교차로에서 멈춰 있을 가능성, 비 오는 날의 주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레벨 4” 실험 및 실용화에 활용할 계획임 - 가와사키시에서 버스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이 높음. 그러나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2023년 6월부터 버스 운행이 줄어들었으며,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교양 시험을 폐지하는 등 운전자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총리,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조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일본이 대규모 투자와 기술 유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였음.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두 나라의 관계는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음 - 1980년대 이후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음. 2024년 3월 기준으로 일본으로부터 약 1,382억 3,000만 링깃(약 41조 8,500억 원) 규모의 제조업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이는 말레이시아 내 약 4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안와르 총리는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예정임. 이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외의 상호 연결성 강화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The Borneo Post, News Wav

○ 말레이시아 케난가 투자은행, 2024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말레이시아 케난가 투자은행은 2024년 하반기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이 4.3%-4.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간 경제 성장률은 4.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이는 상반기 GDP 성장률 약 5%에서 감소한 수치임
- 이 은행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對중국 관세인상, 홍해 사태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총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9.4%에서 7.3%로 하향 조정했음. 특히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외부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견고한 내수와 서비스 부문 성장세는 이러한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객 증가, 안정적인 실업률, 투자 유입으로 인한 가계 소득 증가 등이 말레이시아 경제 안정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The Edge Malaysia, ADFIM

○ UOB 말레이시아, 긍정적인 국가 비즈니스 전망 보고서 발표

- UOB 사업 전망 연구 2024'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사업 환경 및 전망에 대해 국내외 주요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특히, 말레이시아는 향후 3년간 아세안 및 중화권 기업이 진출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 UOB 말레이시아의 CEO 응 웨이웨이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업사이클, 그리고 기업-국가 간 지속가능성 채택 증가가 말레이시아를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강력한 이점을 가지게 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설명함. 또한, UOB 말레이시아는 현지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및 무역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임

-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기업의 70% 이상이 현재 경영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76%는 2024년 경영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채택, 신규 고객 확보 등을 향후 1~3년간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

※ 출처: Bernama, The Star

○ 말레이시아, SK 넥실리스와의 협력 지속

- 한국 SK그룹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는 2023년 5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산업단지 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동박(copper foil)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시작함. 이 공장은 연간 최대 5만 7,000톤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은 사바 주의 높은 토지 접근성, 저렴한 전기세,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강조하며 코타키나발루 내 투자 이점을 제시하였음. 이 공장은 202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완전 가동될 예정이며, 사바 주 GDP에 약 30억 링깃(약 9,200억 원)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SK 넥실리스는 전체 노동인력의 약 95%를 말레이시아에서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원료 가공의 용량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 출처: The Borneo Post, Malay Mai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 태국 상무부, 국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 태국 상무부는 국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및 시장 노점과 정부 운영 상업 시장의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세타 타워신 태국 총리와 관계부처가 논의한 국가 경제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됨
- 임대료 면제 대상은 상무부 산하의 복지식품법원 43곳, 시장 노점 993곳, 상가 1,047곳을 포함하며, 내무부와 공중보건부 산하의 상업 시장도 포함됨. 또한 방콕광역시청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하부 지역, 차투착 주말시장, 톤부리 시장 등 주요 시장도 임대료 면제 대상에 포함됨
- 추가로 태국지방상업상무소는 태국 내 76개 주 전체에 지정 판매점을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내무부와 협력하여 외딴 지역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소비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출처: Bangkok Post, Nation Thailand

○ 태국 대기업, 필리핀 농업 부문에 15억 달러 투자 약속

- 태국 대기업 차룬 포카판 그룹(CP Group)은 필리핀 농업 부문에 15억 달러(약 2조 4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음. CP 그룹은 이전에도 필리핀 농업 기술 개발에 약 25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를 투자한 바 있음
- 이번 추가 투자 계획에는 1만 헥타르(약 100km²) 규모의 현대화 농장 개발이 포함되며, CP그룹은 지난 2022년 필리핀 농무부와 랜드뱅크(Landbank of the Philippines)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주요 축산업(양계, 돼지 양식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음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CP 그룹의 지속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적인 대(對)필리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2022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CP 그룹 회장과 처음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출처: Business Mirror, Philippine News Agency(pna.gov)

○ 태국, 2024년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 유치 목표 설정

- 태국 관광청(TAT)은 2024년 중국인 관광객 약 80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특히 구매력이 큰 젊은 여행객, 소규모 모임단, 카라반 투어 등 시장에 집중할 계획임
- TAT에 따르면, 광저우 및 남부 지방 출신의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태국 내 회의, 컨벤션, 전시회 참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방콕-비엔티안 직행 열차가 라오스-중국 철도와 연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은 해외 차량에 대한 복잡한 입국 절차와 태국 내 임시 운전 면허 발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 내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인해 중산층의 관광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됨

※ 출처: Thaiger, ASEAN Now

○ 태국, 대규모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추진

- 세타 타워신 태국 총리는 국가 수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태국 국가수자원청(ONWR)은 5,484억 바트(약 21조 2,300억 원) 규모의 3개년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2024년 8월 말까지 내각에 제출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약 450만 가구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관개되지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얕은 약 1,200만 라이(약 1만 9,200km²)의 토지를 관개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새로운 댐 건설 △관개수로 개선 △새로운 저수지 조성 등의 방안이 포함됨. 또한, 태국의 총 물 저장량을 47억 입방미터(m³)로 증대할 계획임

- 타마나트 프롬포우 태국 농업부장관은 일부 프로젝트가 예산 제약으로 인해 민관 협력(PPP)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세타 총리는 당국에 홍수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홍수 취약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해 완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

※ 출처: Thaiger, Ein News

필리핀

○ 필리핀 전기자동차협회, 중국과 협력 강화 논의

- 필리핀 전기자동차협회(EVAP)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베이징에서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산업협력위원회(RICC) 임원들과 EV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협업을 논의함
- EVAP 회장 로멜 후안은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RICC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논의는 EV 기술, 인프라 개발, 규제 프레임워크 등에서의 협력 강화와 우수 사례 공유에 초점을 맞춤
- 필리핀 대표단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파사이 SM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필리핀 전기차 정상회의 일정을 공유함. 이 회의는 업계 리더, 정책 입안자,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EV 산업의 최신 트렌드, 도전과제, 기회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출처: The Manila Times, Philippine News Agency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필리핀, 수입 쌀에 특별긴급관세 부과 예정

- 필리핀 농무부는 저렴한 수입 쌀로부터 현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를 도입할 계획을 검토 중임.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 필리핀 농무부 장관은 향후 4개월 동안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힘
- 필리핀은 지난 6월 20일, 쌀 수입 관세를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으며, 7월 20일 기준으로 필리핀의 쌀 수입량은 약 240만 톤에 달함
- 로렐 장관은 팔레이(벼)의 가격이 농민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팔레이에 대해서도 SSG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함. 6월 기준 건조 팔레이의 평균 가격은 1kg당 24.59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상승함

※ 출처: Business Mirror, GMA News Online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중국 EV 배터리 음극재 공장 가동

-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 BTR 신소재그룹과 싱가포르 스텔라인 베스트먼트가 중부 자바주 켄달에 건설한 새로운 음극재 공장을 개소하였음. 이 공장에 약 4억 7,800만 달러(약 6,511억 원)가 투자되었으며, 연간 약 8만 톤의 음극재를 생산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니켈 자원을 활용하여 전기차(EV)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니켈 수출을 금지한 바 있음
- BTR 신소재그룹은 2024년 4분기에 음극재 공장의 2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추가로 2억 9,900만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하여 연간 생산 용량을 16만 톤으로 증대할 계획임. 이 공사가 완공 되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음극재 생산국 중 2위로 부상하여 아세안 배터리 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 출처: Channel News Asia, Reuters